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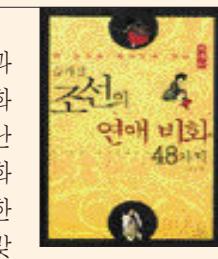
Books



‘흥미진진’ 조선 남여 상열지사

조선의 연애 비화 48가지

김만중 지음



최근 인기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영화로 만들어져 화제다. ‘들기면 어때? 뿐만 아니라 내내 맞바람 스캔들’ 영화의 내용인 즉 이렇다. 착한 부인이 남편의 바람으로 맞바람을 피는데, 횟김에 12명의 남자와 스캔들을 일으킨다는 것.

그럼,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두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 조선시대에도 세기의 성 스캔들이 끊이질 않았다. 조선시대 정사라 할 수 있는 실록을 잘 들여다 보면 그러한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문과 잡지에 조선 역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김만중씨가 낸 ‘숨겨진 조선의 연애 비화 48가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도 높기 만 한 유교의 벽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맞서 자신의 사랑을 위해 애썼던 숨겨진 연애 비화를 싣고 있다.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금기시된 사랑인 동성애를 비롯하여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죽음을 무릅쓰는 애절한 사랑, 한 사회를 뛰어난 세기의 성 스캔들까지 현대를 사는 지금도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킬 만한 비화들이 가득 담겨 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상 가장 높은 위치의 왕실 여자와 가장 밀접한 종의 남자가 사랑에 빠졌으니 당시로는 파격적인 것도 이만저만한 파격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다.(300쪽·왕실 여자가 남자 종과 사랑에 빠지다)



신윤복의 ‘월야밀회’, 보름달이 휘영광 밝게 비치는 한밤중에 무관의 모습을 한 남자와 기생이 밀회를 나누고, 이를 가슴 줄이며 한 여인이 바라보고 있다.

책은 이외에도 ‘다부일처제’를 꿈꾼 요부들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왕실 안의 일금, 궁녀, 내시, 그리고 처첩과 기생들의 48가지 숨겨진 연애 비화가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인다.

조선시대는 성에 대해 철저히 억압하는 사회였다. 그 가운데서 여성은 항상 피해자 신분이었다.

조선이란 사회가 일부일처제를 표방했지만 여려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일부일처제 사회였다. 그런 사회에서 파격적인(?) 사랑을 꿈꾼 여자들이 등장하니 그들이 이른바 ‘요부’들이었다. (조선조는 ‘행실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를 기록·관리하는 대장인 자녀안(姿女案)’을 통해 자유로운 연애를 옥조였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남자와 바람을 판 유감동 사건. 밝혀진 남자만 무려 39명으로 그녀와 관계를 가진 인물들은 당상관 이상 고위층 자제들뿐만 아니라 한창 촉망받는 젊은 관료, 종인,

은장이까지 전 신분을 아울렀다. (174쪽·그 여인과 관계한 사내들이 얼마나 되나?)

또 사료를 통해 볼 때 조선시대 최고의 성 스캔들 장본인 어울우동은 명분 성욕이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여인인 듯하다. 넘치는 성욕으로, 왕실에 대한 적개심으로 많은 사내들을 건드렸으며 건드린 사내에게는 항상 징표를 남겼다.

어리가 여인은 소위 ‘스외광’이라는 걸 했다. 한집 안에서 자란 언니와 동생이 파트너를 바꾸며 성 스캔들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당시 지배층의 성적 문란함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의 절반은 남자이고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 사회에서 절반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는가?” 저자는 어리가 사건에 대한 사관의 논평을 언급하며 이 책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울댓book·1만원〉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3천년 문명의 신비

‘이집트의 예술’



‘이집트’은 피파미드의 웅장함에서 작은 부적 물에 새겨진 얼굴의 섬세함까지, 고대 이집트 예술이 뿐만 아니라 마력이 돋보이는 고양이다.

미국 에모리대 교수이자 고대 이집트 예술 전문가인 게이로 빈스가 이집트 초기 왕조시대(기원전 3천년경)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기원전 304년~기원전 30년)까지 연대순으로 이집트 유물의 특징과 표현 양식을 살폈다.

고대 이집트의 인물 조각상이 항상 정면을 바라보는 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신이나 왕 등을 위한 제사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상류층 인물을 늙지 않고 건강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묘한 아유 등 고대 이집트 예술 관습이 300여점의 사진과 함께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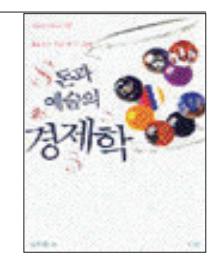
〈민음사·3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

예술, 어떻게 큰 돈을 벌게 되었나

돈과 예술의 경제학

김우정 지음



받았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17개국에서 6천만명의 관람객을 모았으며 전 세계 40국에서 모인 3천 300명의 단원들이 매년 2주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놀라운 성과는 모두 애코디언 연주로 뺨값을 번 서커스단원이었던 24살 청년의 머리 속에서부터 탄생했다. 그는 몇몇 안되는 서커스 관람표를 내는 관객을 버리고, 오페라 뮤지컬 쇼와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요소에 주목했고, ‘웃임 없이 변화하는 도전과 창조 정신’은 경제적인 성공으로 이어졌다.

예술을 통해 큰 돈을 벌면 그건 예술의 순수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걸까? 문화 기업 ‘풍류일기’ 대표인 김우정씨가 예술도 경제 논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산업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돈과 예술’

경제학’을 펴냈다.

이 책의 장점은 다양한 예술이 어떻게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는지 생생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모네의 ‘수련’ 등 단 8점의 작품만 보유하고 있지만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일본 나오시마의 지중(地中) 미술관, 전 세계에서 26년간 6천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겟초’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경제 효과와 김덕수 의해 탄생된 사물놀이, 무역협회로부터 100만 달러 수출탑을 받은 비언어극 ‘점프’와 ‘난타’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적 발전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통한 도시의 경제적 가치 창출의 대표 모델로 여겨지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성공 뿐 아니라, 함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내는 등 창조도시의 조건과 예술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복카라빈·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원 011-602-2532
(광주문현 신본점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절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있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 (02) 88-8949 원 011-602-2233
(신수동 543-51 (우동타운입구 신거리))

싼땅매매

■부산 35평으로 1140만 원 600평 매매가 8,000만 원의 경우 우수한 부동산

■부산 동래구 산성동 194㎡ 매가 25,400만 원

■부산 구포구 대명동 18평 매가 2,000만 원 18평

■부산 구포구 신도동 19평 매가 1,800만 원 19평

■부산 부산진구 용현동 10평 매가 85,000만 원 10평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18,000만 원 10평 매가 10,000만 원 10평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10평 매가 10,000만 원 10평